

베일벗은 삼성증권 제재... 구성훈 대표 거취에 쏠리는 눈

삼성증권의 제재가 베일을 벗었다. 6개월 일부 영업정지 등이 주요 내용으로 앞으로 금융위의 최종결정이 나왔으나 대부분 감독원의 의견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에서 이대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구성훈 대표는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구 대표의 경우 취임한 지 17일만에 발생한 사고로 실질적 책임이 없다는 점에서 '직무정지 3개월' 이후에도 구성훈 대표체제가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1일 제15차 제재심의 위원회를 열고 삼성증권 배당사고 관련 제재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키로 결정했다.

주요 조치 내용은 사측인 삼성증권에 신규 고객에 대한 투자중개업 6개월 정지와 1억원의 과태료 부과다. 이에 따라 심의안의 최종 확정 시 앞으로 6개월 간 위탁매매 신규 계좌를 개설할 수 없으며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규사입 진출이 3년간 불가능하게 된다.

임원 제재의 경우 전현직 임원에게 강도가 차이 있다. 전임 윤용암, 김석 사장에게는 해임권고 징계를 결정했다. 김남수 삼성생명 부사장(전 삼성증권 대표이사 직무대행)에게는 직무정지 권고를 내렸다.

자본시장법상 임원의 경우 최고 징계 수준은 해임권고(요구, 개선)다. 이어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조치 순으로 그 수위가 낮다. 이를 감안하면 전

취임 후 17일 만에 발생... 책임 없어

직무정지 3개월 이후에도 유지 관측

금감원, 배당사고 제재 건의 결정

확정시 6개월 위탁매매 계좌 금지

업계 동정론 확산... "실질책임 없다"

사측 "금융위 최종판단 기다리는 중"

임 사장에게는 최고로 강력한 징계를 내린 셈이다.

눈에 띄는 점은 현직 구성훈 대표가 최악의 징계를 피했다는 사실이다. 이번 배당사고가 '유령주식'이라는 신조어를 낳은 초유의 사태임을 감안하면 당국의 제재심의 이전부터 '해임권고'의 처분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다. 하지만 한 단계 낮은 수위인 그것도 직무정지 6개월이 아니라 3개월 처분을 받으며 숨통이 트였다는 평이다.

이에 따라 구성훈 대표가 자리를 지킬지, 떠날지 거취도 주목된다. 최악의 징계를 피했으

나 그렇다고 자리를 지키기에도 애매하다. 과거 사례로 보면 비슷한 징계를 받은 최고경영자는 대부분 자리에서 물러났기 때문이다.

실제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은 과거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 회장 재직 당시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디폴트스와프(CDS) 등 파생상품 투자손실 관련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후 보름만에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그 뒤 2010년 라웅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차명계좌관련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2014년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은 주전산기 교체관련 내부 갈등 문제로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뒤 자리에서 물러났다.

금융투자업계에선 지난 2015년 불법채권 파킹거래 혐의로 최홍 맥쿼리투자신탁운용 대표이사가 사임한 뒤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단 '직무정지 3개월 처분→사임'이라는 불문율을 구성훈 대표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 과도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구 대표의 경우 배당사고와 관련 CEO로서 도의적 책임은 있으나 실질적 책임까지 묻기에 과도하기 때문이다. 구성훈 대표는 4월21일 주주총회에서 공식적으로 대표이사에 선임됐다. 삼성증권 배당사고 발생시점은 5월6일로 재임 기간으로 따지면 17일에 불과하다.

업계 관계자는 "시간적으로 보나 물리적으로 보나 내부 통제 시스템까지 업무를 파악하기에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대표이사라는 이유로 도의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업무집행에서 실질적 책임을 묻기엔 명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당국은 재임기간은 물론 여러 상황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딱히 근속기간이 짧았다고 그것만 제재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재 수준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

시장과 당국의 뷰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감독원의 의견대로 '직무정지 3개월' 처분으로 최종 결정되더라도 구 대표 체제가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기업지배구조 전문가는 "삼성 금융사 사장단을 50대로 세대 교체하는 등 삼성 금융사도 지배구조 개편의 초입 국면으로 불안요소를 만드려고 할 것"이라며 "구 대표의 빠른 수습으로 사태가 안정됐으며 동정론도 확대되고 있어 바꾸지 않을 이유가 더 많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해임권고를 예상했으나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린 것은 구 대표의 체제를 용인하겠다는 당국의 시그널"이며 "당국의 결정을 충실히 이행한 뒤 구 대표가 대대적인 쇄신을 통해 명예회복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구성훈 대표의 거취와 관련 삼성증권 측은 신중한 입장이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금융위의 최종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제재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에 예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증권 제재심의안은 4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논의된다. 최종 제재안은 4일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융위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최성해 기자 bada@



KB증권 발행어음 시장 진출 가속도

신규 금융투자업 인가 제재 해제

KB증권의 발행어음 인가 발목을 잡았던 신규 금융투자업 인가 제재가 해제된다. 4일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뒤를 이을 발행어음 사업자로 KB증권을 접치고 있다.

발행어음은 초대형IB의 핵심사업으로 꼽힌다. 인가를 받으면 자기자본 대비 최대 2배까지 어음을 발행할 수 있다. 기존에 없던 신규 수익원으로 향후 초대형IB의 경쟁력을 판가름할 주요 사업으로 불린다.

그러나 KB증권은 지난 2016년 현대증권 당시 불법 자전거래로 한 달여 간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당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업무정지가 끝난 2016년 6월 27일부터 2년간 신규사업 인가가 금지됐다.

과거 제재 이력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12월 KB증권의 발행어음 인가 안건을 보류 처리했다. KB증권도 신사업 인가 신청을 자진철회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에 신규 금융투자업 규제가 해제되면서 KB증권의 발행어음 시장 진출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다.

KB증권 관계자는 "발행어음 인가 재신청과 관련해 정해진 바는 없다"며 "사업성 여부를 판단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KB증권은 그동안 발행어음 사업에서 한 발 물러섰지만 초대형 IB 관련 TF팀을 유지했다.



해당 부서에선 3%대의 RP 특판이나 CMA 금리를 최대 2.5%까지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고객층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며 발행어음 사업의 기틀을 마련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초대형IB인 삼성증권과 미래에셋대우의 단기금융업 신청이 당분간 어렵다는 점도 인가에 호재가 될 수 있다.

삼성증권은 올해 우리사주 배당사고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로부터 6개월가량 일부 영업정지 처분과 대표이사 3개월 직무 중지는 중징계를 받았다. 미래에셋대우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당분간 발행어음 인가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손현지 기자 hyunji@

롤리코스터 조선주 "저가매수 베팅"

단기급락 밸류에이션 매력 증가

최근 조선주가 롤리코스터를 타고 있다. 조정의 발단은 대장주인 현대중공업의 해양 야드가동 중단 우려 확산이다.

강원구 현대중공업 사장은 6월22일 담화문을 통해 해양 야드의 가동 중단을 발표했으며 가동 중단 이유로 업무 부진 및 가격 경쟁력 저하라고 밝힌 바 있다.

게다가 현지시간 지난달 26일 오후, 해외 정보지에 뒤늦게 보도된 현대중공업의 해양사업 부조업 중단 소식으로 투자심리가 악화됐다.

이 같은 우려가 겹치며 현대중공업뿐 아니라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삼성중공업의 주가는 조정을 받았다.

이번 단기 급락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매수 기회라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주가 급락으

로 밸류에이션 매력이 커졌기 때문이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PBR의 경우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삼성중공업이 각각 최근 추정치 기준 12개월 선행 PBR는 0.73배, 0.58배, 0.66배, 0.65배까지 하락했다.

이 가운데 현대중공업의 경우 2018년 증가 기준 처음으로 10만원을 하회했다. 이는 지난 2017년 말 적자 전방 공식 및 유증 공시로 인한 급락을 제외하면 2016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곽지훈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번 급락으로 현대중공업을 비롯해 조선업종 전반적으로 매수하기에 매력적인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단 조선업종의 주가가 유가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유가 상승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돼 조선업종의 주가 상승 여력 역시 제한적일 것임을 감안하면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이 유효하다"고 조언했다.

최성해 기자 bada@

언제나 가족 곁에서
소중한 사람 하나 하나를
가족처럼 지키는 일

이것이 우리가
보험을 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Lifeplus와 함께
삶을 더 잘 살기 위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금융을 하는 이유, Lifeplus

한화손해보험

가족을 지키는 모든 방법

전가족
완전보장